

세계 항공기 시장전망 분석

보잉과 에어버스사는 향후 20년간 항공기 시장을 전망, 분석하여 지난 6월말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양사는 매년 1/4분기 전에 '향후 20년간 시장전망'을 분석 발표하였으나, 올해는 최근의 아시아, 러시아, 남미 등의 경제위기로 인한 분석의 어려움으로 발표가 늦어졌다. 양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시장전망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항공기 분류대상과 기준, 통계처리방법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사는 최근 주요지역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장기 전망에서는 세계 항공기 시장의 호황을 전망하고 있다. (편집자 주)

보잉사는 전세계 주요지역의 지역 항공기를 포함 50석 이상 항공기를 대상으로 예측하였다. 에어버스사는 5대 이상의 제트기를 운항하는 70석 이상 전세계 219개 항공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보잉사의 전망과는 달리 러시아 지역에 대한 장기 전망은 그 지역에 대한 불안정성과 적절한 연구방법의 부족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작년에 정기 항공사들은 160억 달러의 흑자로 '97년 165억달러 보다는 적지만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의 흑자는 운송량의 증가라기 보다는 유류가격의 하락, 항공료 조정, 구조조정 등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유럽 역내시장에서의 운송성장률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요금의 규제완화와 새로운 항공사들의 등장에 힘입은 바 크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은 전체적으로 운송량이 7.6% 하락하였다. 그러나 아시아, 남미 등 주요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항공운송산업과 제조산업이 세계적으로 커다란 성장을 하는 산업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양사는 예측하였다.

경제전망과 항공운송산업

지난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인해 GDP 예측에 있어서 어려운 해였다. '98년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정

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을 무시해 버렸으며, 보잉사가 작성한 올해의 전망에서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에 작성된 성장 예측치 보다도 16%나 낮게 잡았다. 또한 남미와 브라질도 손실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20년간의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러시아는 몇 가지의 경제 구조적인 문제로 예측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나 향후 20년 이후에는 세계 자유시장에 무난히 편입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잉사는 2018년까지 전세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였다. 현재 세계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아메리카와 유럽은 각각 2.2%, 2.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 6.1%, 동남아시아 4.1%,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 4.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아시아 지역 GDP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의 하락세로 동북아시아는 1.9%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경제성장률(GDP)전망 (1998~2018)	
지역	성장률
동북아시아	1.9
동남아시아	4.1
중국	6.1
서남아시아	7
중동	5.5
오세아니아	2.3
북아메리카	2.2
중앙아메리카	4.4
남아메리카	4.4
러시아	3.3
유럽	2.3
평균	2.7

» 보잉사 전망

보잉사는 GDP와 항공운송량 증가는 약 66%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올해의 전망에서는 지역 항공운송사까지 포함시켰다. 지역 항공사들은 현재 대형 항공사의 허브 역할로 공항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존의 프로펠러 항공기를 대신하는 등 독자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항공여객운송 연평균 성장률은 4.7%, 항공화물운송 연평균 성장률은 6%로 전망하였다. 아시아와 연관된 항로의 운송성장률이 큰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아시아-북아메리카, 아시아-유럽을 잇는 항로의 성장률이 각각 5.6%, 6.1%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아시아 역내와 중국국내선의 경우도 6.4%, 8.4% 성장 등 전세계 평균성장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에어버스사는 항공운송량 분석시 각국의 GDP 성장을 기본으로 분석하기는 하나, RPK(킬로미터당 여객 인수) 개량법을 사용하였다. RPK는 GDP의 성장률과 여러 가지 독립적인 변수들을 분석해 예측한 수치이다. 또한 시장이 성숙하면 항공운송 수요는 경제성장보다는 실제 요금의 변화에 민감하다는 전제를 두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여객운송은 연평균 성장률은 5%, 항공화물운송 연평균 성장률은 5.9%씩 성장한다고 전망하여 항공여객운송은 보잉사보다 약

주요지역 운송성장률(1998~2018)

구 분	에어버스 (RPK)	보잉 (RPK)
북아메리카(미국) 역내	2.7	2.9
유럽-북아메리카(미국)	6.5	3.7
아시아-북아메리카(미국)	6.5	5.6
아시아-유럽	6.7	6.1
유럽 역내	5.5	4.3
아시아 역내	4.9	6.4
증 금	8.4	

* 에어버스사는 북아메리카 대신 미국을 통계의 기준으로 설정
RPK (Revenue Passenger-Kilometers) : 킬로미터당 여객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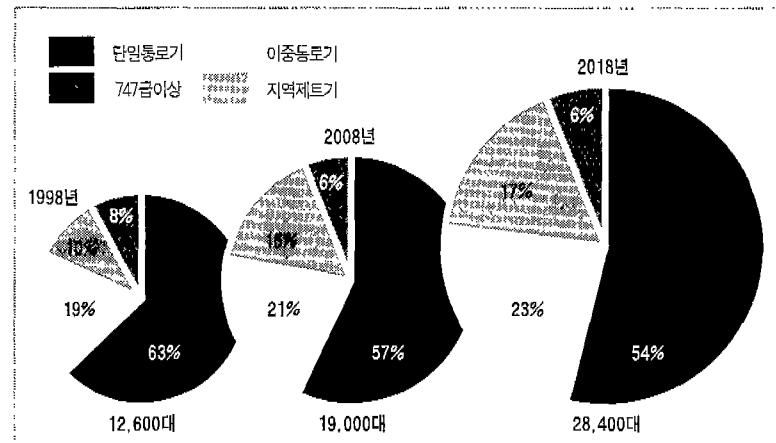
0.3% 높게 잡았다. 에어버스사도 아시아와 연관되는 아시아-미국, 아시아-유럽 항로가 각각 6.5%, 6.7% 가 성장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공기 시장전망

보잉사가 전망하는 항공기 대수는 '98년 12,580대에서 2018년에는 28,425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중 8,275대는 향후 20년 후에도 운영유지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50대의 항공기가 향후 20년간 노후 항공기 대체수요와 운송량 증가에 따른 항공운송 산업 성장에 따라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현재 운영되는 약 12,580대 항공기중 단일통로기는 시장점유율이 현재 약 63%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54%. 747급 이상은 8%에서 6%로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이중통로기는 19%에서 23%, 지역 항공기는 10%에서 17%로서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지역항공기는 주로 북아메리카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지역항공사는 커뮤터기의 역할에서 전략적 파트너 형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즉 허브항공기의 역할, 비즈니스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기 운항 등 새로운 서비스들은 산출량과 이윤을 늘릴 수

보잉사 전망 항공기 시장 예측



있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중 통로기도 빠른 성장분야로 주목 받을 것이다. 장거리 대륙간 시장을 운항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과 항공사들이 747기를 대체함으로 인해 이중 통로기의 경제적인 운항 잇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747급 이상은 8%에서 6%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기는 하나, 아시아-태평양 항공시장에서는 동급 항공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인도되는 20,150대 항공기는 지역제트기가 4,030대(20%), 단일통로기 10,680대(53%), 이중통로기 4,433대(22%), 747급 이상이 1,007대(5%)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항공기 시장의 규모는 2018년까지 1조 3,800억달러의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에어버스

에어버스의 분석대상 항공기는 '98년 총 9,993대에서 2018년에는 19,106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98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9,993대중 1,086대는 향후 20년 후에도 계속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3,252대는 임대기간이 끝났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는 중고항공기로 유지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5,655대는 노후항공기 대체, 9,113대는 운송량 증가에 따라 항공기 수요 증가로 신규 생산될 것이므로 향후 20년간 총 14,768대의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항공기 제작, 인도 전망(1998~2018)

구 분	보잉	에어버스	비고
지역제트기	50~106석 4,030(20%)	1,913(13%)	에어버스는 70석이상기준
단일통로기	107~240석 10,680(53%)		
	125~175석	6,477(44%)	
	233~310석	4,433(22%)	
	210~250석	2,830(19%)	
	300~400석	2,340(16%)	
	400석이상	1,007(5%)	1,208(8%)
계	20,150(100%)	14,768(100%)	

125~175석 항공기는 현재 62%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2018년에는 48%로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210~250석은 11%에서 18%, 300~400석은 15%에서 17%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았는데 장거리 운항 능력이 향상되면서 승객수요에 따른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00석 이상 항공기도 현재 시장분석 대상 항공사가 보유하는 항공기는 0.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6%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대형 항공기는 주로 중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항공사들이 세계 항공기의 55%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새로이 창출되는 14,768대의 새 항공기들은 100석 이하가 1,913대(13%)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보잉사와는 달리 소형 항공사나 현재 터보프로펠러 항공사들의 수요를 염두해 두지 않았으므로 100석이하 항공기의 수요는 적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 단일통로기는 6,477대(44%), 이중통로기 210~250석은 2,830대(19%), 300~400석은 2,340대(16%), 400석 이상은 1,208대(8%)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수요는 현재의 가치로 보았을 때 약 1조 1,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어버스사 전망 항공기 시장예측

